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다음 주일은 새 과정, 새 학교, 새 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파송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 이번 목요일(8월9일) 저녁 8시 교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8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송은주 집사 (시편 111)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이영미 집사

다음 주 친교: 김민아 집사, 안정자 권사

제18권 32호

2018년 8월 12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1:11-24: 2:1-2, 6-9)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5:36-41; 16:6-15** -----인도자  
 설교(Sermon)----- “**정하신 길, 예비하신 사람**”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67장 (통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Psalms) 130 ----- 성창현집사  
 찬양(Choir) ----- 거룩하신 왕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5:36-41; 16:6-15**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정하신 길, 예비하신 사람**”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430장 (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땅 끝까지 예수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과 처음 교회, 핍박과 사마리아 전도, 세계 선교와 예루살렘 공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받았습니다. 교회 뿐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사용됩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 편지로 여겨지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불러 사용하셨는지 바울 자신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지극한 은혜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 가운데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일의 열매가 있을 때 사람이 영광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은 늘 죄인 중의 괴수인 자기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내가 받는 법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에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없이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귀중한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르신 길로 달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삼년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잠깐 교제를 나눈 후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 십여년을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셨는데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후 십사년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사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을 위해 부르신 것을 확인 받고 사역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대개 되돌아 보며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더해 앞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대로 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없는 광야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고향에서 보낸 십오년의 세월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시간 같지만, 바울의 내면에서, 주변에서, 아니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로 단련되었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졌으며 교회가 이방을 향해 눈과 손이 열려갔습니다. 바울이 동족의 위협과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여러 번 맞은 것도 이 때였고, 삼총천에 오른 것도 이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보내진 것도 이 때였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현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따를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가족과 형제가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일에도 사용받는 법입니다.